

# 영암군내 유일 영암병원 응급실 폐쇄

### 재정악화에 진료 중단...응급의료 사각지대 전락

### 응급환자 목포·나주 등 이동해야...주민들 불안

영암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영암병원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야간응급실을 폐쇄해 영암지역이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영암군은 "지난 5일 삼선의료재단 영암병원이 재정악화 등 병원 내 사정으로 7일부터 당직의료기관을 반납하고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7일 밝혔다.

영암병원은 실제 7일부터 토·일요일과

공휴일, 야간응급실을 폐쇄하고 응급환자는 받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병원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영암병원은 1년 3개월 동안 응급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해 토·일, 공휴일이나 야간환자 발생 시 인근 목포, 나주, 강진, 해남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새로운 경영진이 병

원을 인수하고 1년여동안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민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했으나 또다시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맞게 됐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병원 측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4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4월부터 공중보건의사 1명을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비 1억50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으로 확정 받아 집행할 예정이었다.

영암군은 이 같은 지원책에도 영암병원이 야간 응급실을 폐쇄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영암소방서(119)의 협조를 통해 인근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으로 건

급 이동 조치하는 한편 택시 운송조합의 협조 및 반상회보 등의 홍보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초 단위로 삶과 죽음을 오간다는 점에서 응급실 부재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영암에서 인접한 나주와 목포, 강진, 해남 등의 응급의료기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암병원 관계자는 "야간 응급실 이용 환자가 극소수인데다, 운영에 따른 운영적자도 너무 커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 국수산맥 어린이 바둑대축제 성료

### 12개국 400여명 참여...다면기 등 행사도

2016 국수산맥 어린이 바둑대축제가 지난 3~4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국제어린이 바둑대축제는 영암군, 강진군, 신안군 3개군이 공동 주최하는 2016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의 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등 12개국에서 4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는 영암 출신 조훈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바둑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대회 기간 중 한·중·일·대만 단체바둑대항전에 참여한 프로기사의 사인회를 비롯한 한명의 프로기사가 여러 명과 동시에 대국을 진행하는 다면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바둑대축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어린이들까지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바둑축제로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 영암경찰서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 치안서비스

영암경찰서 신북파출소는 "최근 영암 금정면 유평마을회관을 방문, 행복한 우리마을 찾아가는 경찰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신북파출소가 마련한 '행복한 우리마을 만들기'는 보건소와 함께 평소 방문이 어려운 오지마을을 찾아 혈압체크 등의료서비스와 경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지안을 유도하는 것이다.

신북파출소는 이날 참석한 유평마을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이론차 안전모 등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경찰에 바라는 점 등 주민과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최훈의 신북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 장흥군 국공립 어린이집 1곳 확충

장흥군은 "정부지원과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역 어린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방침을 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경제계보육지원사업에 공모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신축되는 어린이집은 올해 하반기 설계를 시작해 내년 12월이면 마무

리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5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4개소와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유치로 통해 28%가 됐다"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강진청자축제 9일 일정 마무리

### 가우도 등 수만명 찾아...숙박업소·식당 등 매출 경증

폭염만큼 뜨거웠던 제44회 강진청자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흙, 불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지난달 30일 개막했던 제44회 강진청자축제는 장기적인 국내 경기 불황과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속에서도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특히 올해 축제 슬로건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강진청자축제'를 증명하듯 어린이들이 관람객의 35%를 차지해 전라이 주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의 축제 포인트는 명품 강진청자 판매행사, 축제기간동안 한옥청자 판매장과 민간요 아외판매장에서 평소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강진청자축제는 피서철과 맞물려 마량놀두산시장, 가우도 등 강진

관내 유명 관광명소와 강진읍내 3대 물놀이장과와 연계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말인 지난 6일, 7일에는 마량놀두산시장과 출렁다리로 유명한 가우도에 각각 1만명, 2만명이 찾았으며 청정계곡물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는 강진 3대 물놀이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에 힘입어 강진읍내 숙박업소, 면단위 유명식당까지 예약이 넘쳐났다.

강진원 군수는 "한층 성숙된 강진청자축제는 물론 마량놀두산시장, 가우도, 도암면 석문공원 사랑 구름다리, 강진 3대 물놀이장 등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강진의 농수특산물 판매 확대 등 군민소득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군 전국청자백일장대회 김주영양 대상

강진군은 7일 "최근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청자백일장대회에서 김주영(강진고 1년)양이 '기를 묻는 나의 의지'란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청자백일장 대회는 '시가 꽃피는 행복한 마을, 강진'프로젝트의 서너지 효과를 위하여 제44회 강진청자축제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초등부는 바다·구름, 중·고등부는 길·의자를 시제로 전국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열띤 글 솜씨를 뽐냈

다. 최우수상에는 박재희(고양시 일산 백석고 3년)양이, 강진군수상에는 조은채(목포 용해초)양이 수상했다.

이번 제8회 전국청자백일장대회에는 한승원 소설가, 신덕룡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인환모 전남대학교 도서관장이 심사를 맡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실력을 겨뤘다"며 "꿈을 살리고 상상력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책을 꾸준히 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무더위 잊은 글쓰기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전국청자백일장대회에서 학생들이 글쓰기에 몰두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